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교육부  
발 신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간사 02-723-5056  
kkhee@pspd.org)  
제 목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날 짜 2019. 11. 29. (총 1 쪽)

## 공 동 성 명

###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1.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속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2.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